기업 메세나 활동 전개로 문화 · 예술 분야 지원

심영섭 우림건설 사장

"나눔과 섬김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나눔과 섬김을 통한 풍요로운 미래 창조.' 언뜻 보기에 사회 봉사 단체의 강령인 듯하다. 하지만 이는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의 심영섭 사장이 추구하는 '문화 감성 경영'의 모토이다. 그는 평소 임직원들과 문화적 접촉을 통하여 경영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있다. 나아가 임직원 모두가 사회 봉사 및 지원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협력 공동체 의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심영섭 사장이 이처럼 문화 감성 경영을 강조하는 데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함께 기업 이미지 제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설업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면서도 투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인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화 마케팅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문화 · 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문화 복지 전담 담당관을 두고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하였다. 중견 업체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급여 1%나눔 운동으로 조성된 기금에 회사가 기금을 더하는 선진국형 매칭 그랜트를 실시하였다. 조성된 기금은 현장 주변의 소외계층 및 녹색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 사회 단체를 돕는 데 쓰였다. 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심영섭 사장의 열린 마음을 임직원들이 신뢰함으로써 '나눔의 기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림건설의 문화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 메세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업 메세나는 기업들이 문화 · 예술계를 조건 없이 도움으로써 문화 및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일을 말한다. 이 회사가 선택한 지원 분야는 전통 예술 부문. 우림건설은 지난 3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신영희, 안숙선, 이은관 선생 등 우리 민요를 대표하는 국악인들이 참여해 펼친 '우리 민요의 밤 행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5월 춘향제를 비롯해 잊혀져 가는 우리 소리와 전통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작업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단지 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활성화되고 있다. 생색내기, 사진 찍기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우림건설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아동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근 영화 배우 차인표 주연의 가족 영화 '보리울의 여름' 시사회에 200명의 빈민 아동들을 초대한 데 이어 전국의 아동 장애인 2,000명에게 영화 시사권을 배부하였다.

이러한 외부 문화 지원 활동과 함께 심영섭 사장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시하고 있다. 그는 평소 '사람 만이 희망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악화(惡貨)를 양화(良貨)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박원순 변호사, 산악인 엄홍길 씨 등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유명 강사를 초청해 그들의 봉사 및 모험 정신을 직원들에게 들려주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IMF 사태 당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위기는 그 파장이 배가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직원들과 문화적 접촉을 통해 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눔과 섬김이 서로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